

지역명품을 세계명품으로

창사 57주년 광주일보 캠페인

F3 이끄는 '초고성능 타이어'

〈자동차 경주대회〉

9 금호타이어 '엑스타'

평크나도 80km 주행

독일서 최우수제품 등급

효자 브랜드 자리매김



금호타이어의 '엑스타' 시리즈는 세계적 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3(F3)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1960년 설립된 금호타이어는 연간 6천6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해 180여개 국가에 12억달러 어치를 수출하는 세계 10대 타이어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같은 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대표 브랜드인 '엑스타(ECSTA)'의 질주였다.

현재 금호타이어가 생산하는 타이어 브랜드는 크게 4가지다. 스노우 타이어인 '아이젠', SUV용 '로드벤처', 승용차용 '솔루스', 초고성능 타이어인 '엑스타'가 그것이다.

엑스타는 1980년대 '광폭타이어'로 유명한 고성능(HP) 타이어인 '솔루스'보다 진일보한 타이어로, 접지력·핸들링·코너링 등 주행성능이 탁월해 초고성능(UHP) 타이어로 불린다. 금호타이어 브랜드중 최고 프리미엄 제품으로 지난 2002년 출시된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효자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엑스타의 비중은 금호타이어 전체 매출의 30%를 넘는다.

'ECSTA'는 'ECSTACY'에서 따온 말로 '환희·절정·최고의 순간'이란 뜻을 담고 있고 'Excellent Tire'를 줄여 '뛰어난 타이어'란 의미도 있다.

엑스타의 탄생 이면에는 모터스포츠의 기술이 숨어있다. 최첨단 타이어 기술이 모두 결합된 포뮬러3(F3) 레이싱 타이어의 노하우가 그대로

엑스타에 전져져 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는 광주 중앙연구소에서 개발한 경주용 타이어를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경주 대회인 F3에 공급하고 있으며 경주용 타이어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로 엑스타를 개발했다.

이렇다보니 내마모성과 핸들링 성능이 탁월해 국내는 물론 세계 UHP타이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자동차 매거진이 주최한 잿은 노면 테스트에서 '최우수제품' 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엑스타의 '풀라인업' 체제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케팅을 펼쳐 엑스타의 대표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고급 승용차용으로 '엑스타 LX', SUV 전용으로 '엑스타 DX', 평크후에도 80km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엑스타 SPT' 등을 출시한데 이어 친환경 타이어로 '엑스타 XC'와 '엑스타 DX 에코'

를 시장에 내놓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SUV용 친환경타이어인 '엑스타 DX 에코'의 경우 기존 제품보다 회전저항을 25%정도 감소시켜 10%의 연비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1년에 2만km주행시 타사 제품에 비해 30만원의 연료비가 덜 든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식 스폰서, 모터사이클 마케팅 등으로 엑스타의 브랜드 가치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며 "엑스타를 주축 삼아 2015년 세계 5대 타이어 메이커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엑스타 LX' 타이어

삼성전자 '깜짝 실적'

반도체·LCD 흑자 ... 2분기 영업이익의 2조 6천억

삼성전자가 올 2분기에 증권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에 국내의 시장을 합친 연결기준으로 매출 31조~33조원, 영업이익 2조2천~2조6천억원의 실적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6월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 2분기의 연결기준 매출(29조1천억원)과 영업이익(2조4천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분기에 분사 기준으로 18조1천400억원의 매출과 1조8천9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

다. 삼성전자의 2분기 깜짝 실적은 1분기에 9천800억원의 적자를 냈던 반도체와 LCD 부문이 흑자로 돌아서고 TV와 휴대전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코스피지수는 0.87포인트(0.06%) 내린 1,419.17로 출발했으나 삼성전자가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2분기 실적 잠정치를 내놓으면서 실적 기대가 급부상하며 전 거래일보다 8.90포인트(0.63%) 오른 1,428.94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제품화 사업

14일 광주·전남 설명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14일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이 사업은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제품화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억여원 규모의 프로젝트 투자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정부의 평가시스템을 통해 지원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투자기관, 중소기업의 공동 투자를 통해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벤처캐피탈협회(02-2156-2103~4)로 제출하면 된다. /김지용기자 dok2000@

'동물 실험실' 등록 설명회

동물실험실이나 실험동물용 판매하는 업체는 내년 3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험동물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새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7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9일), 광주(10일), 대구(14일), 부산(15일), 인천(17일) 순으로 설명회를 연다. /연합뉴스

'SHOW'가 쏘울을 쏜다

고객 1천만명 돌파 이벤트

'나만의 자동차' 무료 운행

KT는 자사브랜드인 'SHOW'의 가입자 1천만 고객 돌파를 기념해 다음달 5일까지 '나만의 스타일 DIY(Do it yourself)' 행사를 진행한다.

KT는 우선 고객 30명이 쇼 홈페이지(www.show.co.kr)에서 직접 디자인한 자동차를 1년간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내가 디자인한 나만의 자동차' 이벤트를 가이차 쏘울(SOUL)과 함께 진행한다.

유류비를 제외한 일체의 차량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며 사전준비 테스트 등 연계 이벤트를 통해 유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필수기자 kps@kwangju.co.kr

또 고객이 직접 그리고 색칠해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내가 디자인한 핸드폰 케이스' 이벤트도 열린다. 휴대전화 모델은 김연아의 햅틱(SPH-W7700), 햅틱 아몰레드(SPH-W8500), 아레나(LG-KU9000), 러브액츄얼리(IM-U460K) 4종류이며 이벤트 기간 중 모델별로 각각 100명씩, 모두 400명을 선정해 휴대용 케이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체로 경쟁모델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SHOW에 가입하게 되면 고객 1천명을 선정해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를 1개월간 무제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KT의 쇼 가입자는 2007년 3월 1일 전국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9년 6월에 1천만명을 돌파했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립니다 2. 오랫동안 듣습니다 3. 가격이 저렴합니다

국제보청기

www.kjbr.com

본점 (063)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동 1-1)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52-9200
 송정점 (063) 227-9970
 익산점 (063) 851-2822

정부보증 서민지원대출

정원스케에다 있다

대출금 총액 5~1000만원
 만기까지 원금 상환 불필요
근로자 생계 보증대출

연 7.3% 이내, 최대 5백만원까지

정부보증 서민지원대출

관음신협에 다 있다

대출금 총액 5~1000만원
 만기까지 원금 상환 불필요
무점포 무등록 자영업자 대출

연 7.3% 이내, 최대 5백만원까지